

교토시 인권과 관련이 있는 곳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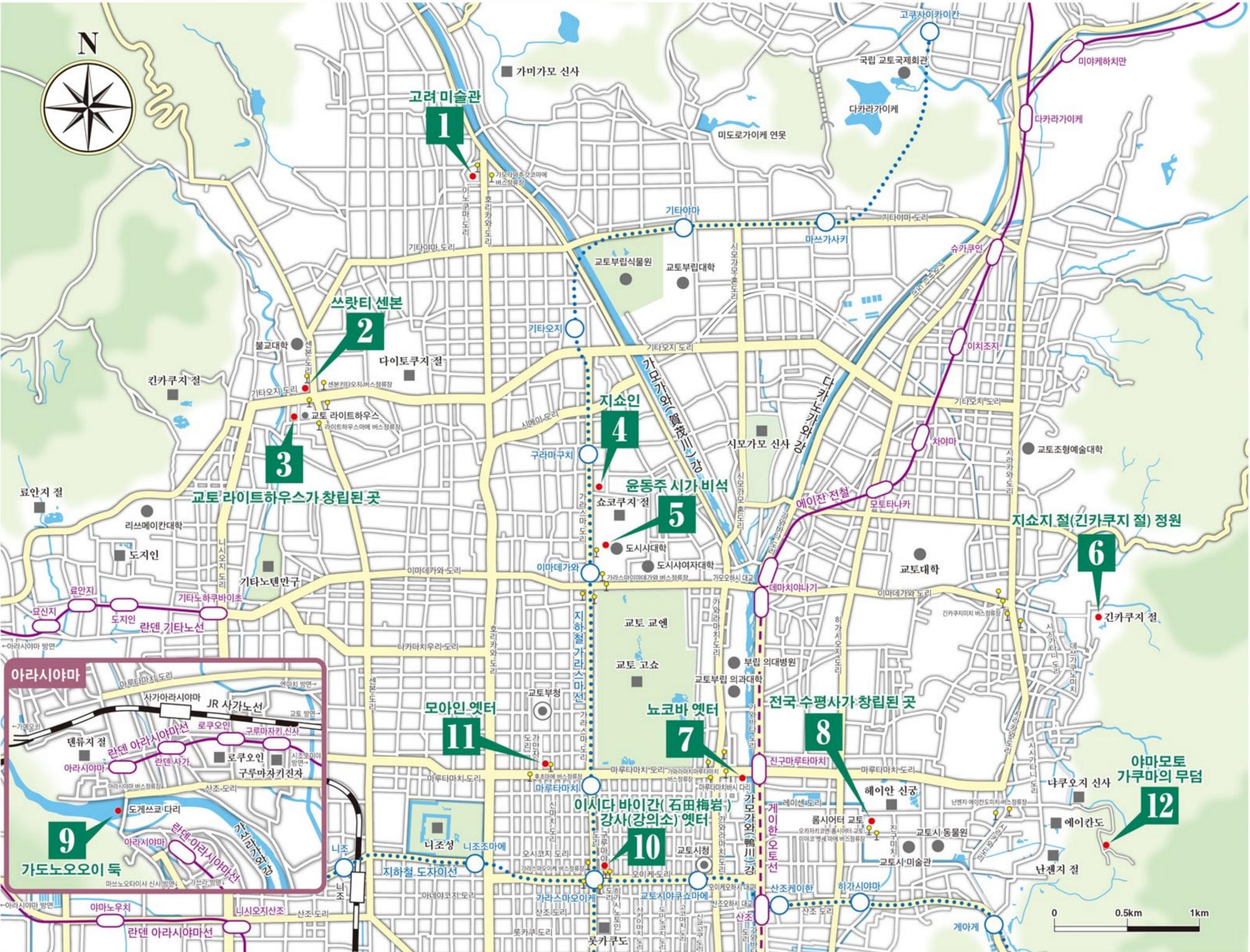
천 년 이상의 세월을 걸쳐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는 여러 계층의 주민들이 끈기 있게 삶을 살아온 도시로, 인권문화의 전통이 역사 속에 맥맥히 살아 숨 쉬는 도시입니다. 이 지도는 교토의 역사를 이어온 선인들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교토 시내에 많이 존재하는 명소, 고적들 중에서 인권과 관련이 있는 여러 곳을 소개합니다. 다시금 인권에 대하여 생각하며 "인권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교토"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아래 주소, QR코드에 연결하시면 일부 시설의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facebook.com/jinkenbunka
- 인권과 관련이 있는 곳으로 가실 때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문헌
"인권과 관련이 있는 곳을 찾아서" I, II, III, 교토 시내편(교토 인권개발추진회의)
"교토 인권역사기행" (인문서원, 세계인권문제연구소 편, 감수 우에다 마사야키)
"강과 인권과 관련이 있는 곳을 찾아서" (세계인권문제연구소 편)

"꼭 같습니다, 당신과 나의 소중한"
교토시 인체를 제275539호
발행 - 교토시 문화시민교 생활안전추진부 인권문화추진과 2016년 3월



1 고려 미술관

인권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곳

교토를 극진히 사랑해 마지 않은 제일조선인 정소로 씨가 수집한 조선의 미술 공예품과 일상 민구(民具)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술관 문에서 한발 들어서면 조선문화를 상징하는 돌하르방과 석탑이 서 있어 교토에서 살아 숨 쉬는 조선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 무료.
TEL 075-491-1192
FAX 075-495-3718

- 시영버스 [4] 9 [46] 등
"가도카와후카코마에"에서 도보 1분

2 쓰라티 센본

인권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곳

지역 역사와 주민 참가형 지역 조성 등을 통하여 인권에 대해 폭넓게 배울 수 있는 전시 시설로서 1994년에 개설되었습니다. "쓰라티"라는 명칭에는 "쓰레기(쓰레기)를 함께 하는"을 축약시킨 교토 사투리로, "가족이 함께 견학을 와 주었으면"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입장 무료
TEL-FAX 075-493-4539

- 시영버스 [204] 205 [206] 등
"센본카도야" 바로 앞

3 교토 라이트하우스가 창립된 곳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인권과 관련이 있는 곳

2차대전 후 영인 교육이 점차 진흥되는 가운데 "교토에 영인 학생을 위한 도서관을 설립하자"는 절실한 소망으로 모인 모교와 눈에 장애를 가진 맹학교 교원 도리이 도쿠지로가 사유지를 제공하여 창립된 시설. 도서관 사임뿐만 아니라 시각 장애인의 복지 및 문화 교양의 종합 시설로서 창립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도리이 도쿠지로의 명판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 시영버스 [6] 146 [59] [206]
"라이트하우스마에"에서 도보 3분

4 지쇼인

국제교류와 관련이 있는 곳

지쇼인에는 에도 시대 일조(일본과 조선) 교류 과정에 작성 교환된 왕복 서한, 시문학 등 자료가 보존되어 있고 사원(寺院) 앞에는 이를 전하는 팻말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비공개로 참배를 못 하지만, 5명 이상 단체 관람자는 사전에 전화 신청하면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참배료 무료.
TEL 075-441-6060
FAX 075-414-0725

- 지하철 "구라마치"역에서 도보 5분

5 운동주 시가 비석

역사의 교훈을 오늘에 전하는 곳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운동주는 도시사 대학에서 학업을 하던 당시에 사용이 금지되었던 한글로 시를 지었다는 죄명으로 체포, 투옥되어 1945년에 후쿠오카의 교도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비석은 도시사 대학에서 배운 한국 조선인 졸업생들이 1995년에 건립한 비석입니다.
● 지하철 "이마데가와"역에서 도보 1분
● 시영버스 [59] 201 [203] 등
"가라스마아마에"에서 도보 1분 (도시사 대학 이마데가와 캠퍼스 내)

6 지쇼지 절(킨카쿠지 절) 정원 <세계유산>

피차별 민중의 활약과 관련이 있는 곳

중세에서 근세에 걸쳐 가와라노노(강가에 사는 사람)라 불리며 혹독한 차별을 받았던 주민들 중 정원사를 나와 모교로 불렀습니다. 나와노들은 사원(寺院) 등 정원을 꾸미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뛰어난 정원 정비 능력을 지닌 전야미는 무로마치 막부 제8대 장군 아시카가 요시마사에게 중용되어, 이후에 지쇼지 절로 된 히가시야마데의 정원 조성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존하는 정원은 대부분 에도 시대에 개수되었습니다.
● 시영버스 [17] 203 [204] 등
"킨카쿠지마에"에서 도보 8분

7 노코바 옛터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인권과 관련이 있는 곳

노코(女)의 "코(紅)"란 피록 짜거나 재봉 등 당시 여성들이 생활을 지탱하는 데 필요했던 기술을 말하며, 이 기술을 가르치는 장으로서 1872년 일본 여자 교육의 선구적 교육 시설이 이곳에 개설되었습니다.
● 시영버스 [20] [204] [205] 등
"가와라미치마루마치" 바로 앞
● 게이한 "친구마루마치"역에서 도보 1분

8 전국 수평사가 창립된 곳

피차별 민중의 활약과 관련이 있는 곳

1922년 3월, 당시 교토시 오카자키 공회당에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피차별 부락의 주민들이 모여들어 "전국 수평사" 창립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대회에서는 일본 최초의 인권선언으로도 알려진 전국 수평사 창립선언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비석은 창립대회의 개최되었음을 나타내는 비석입니다.
● 지하철 "히가시야마"역에서 도보 11분
● 시영버스 [32] [46] "오카자키공회당"에서 도보 2분 (롬시어터 교도 내)

9 가도노오이 둑

국제교류와 관련이 있는 곳

5세기 후반에 한반도에서 건너온 진(秦) 씨의 치수 관개-농지 개발의 모토 기술이 뛰어난, 현재 도게쓰코 다리 부근에 강을 흐름을 막아서 저수를 하고 흐름과 다른 수로를 새로 정비하기 위한 둑을 쌓았습니다. 이 둑이 만들어짐으로써 홍수를 방지하는 것과 동시에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주변 일대의 개척이 진척되었습니다.
● 라넨 "아라시야마"역에서 도보 4분
● 라넨 "아라시야마"역에서 도보 7분
● 시영버스 [11] 28 [93] 등
"아라시야마"에서 도보 4분

10 이시다 바이간(石田梅岩) 강사(강의소) 옛터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인권과 관련이 있는 곳

1729년에 현재 교토시 나카구에 소재한 민가로, 정치·경제·교육 등 사람이 도를 지으며 살아가는 길에 대하여 남다른 불문하고 누구나 무료로 청강할 수 있도록 강의를 시작한 인물로 알려진 이시다 바이간(石田梅岩)의 가르침은 상인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그의 학문은 세키몬신카(石門心學)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비석은 강사(강의소) 옛터를 알리는 비석입니다.
● 지하철 "가라스마아마에"역에서 도보 1분
시영버스 [15] [51] [65]
"가라스마아마에"에서 도보 1분

11 모아인 옛터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인권과 관련이 있는 곳

1878년에 개설된 일본 최초의 맹·농학교인 "교토부 모아인"은 1875년경에 현재의 가미구내의 초등학교 교원이었던 후쿠자와 다시로가 학교 내에 설치한 교조(학소)가 학교 형태로 발전한 시설입니다. 이곳에는 1879년에 준공된 이전 후의 학교 건물이 있었습니다.
● 시영버스 [10] 93 [20] [204]
"후쿠오마에" 바로 앞
● 지하철 "마루마치"역에서 도보 10분

12 야마모토 가쿠마의 무덤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인권과 관련이 있는 곳

야마모토 가쿠마는 에도 막부(도쿠가와 막부) 말기의 혼란으로 인해 시력을 잃고 허반신 불수 상태가 되면서도 교토부 고문적으로 취임하여 일본 최초의 초중학교, 정신병원, 노코바, 모아인 등의 설치에 주력하는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권리 옹호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 나쿠우지 신사에서 산길을 걸어서 25분
● 나쿠우지 신사까지는 시영버스 5
"난젠지-에이만지"에서 도보 5분